

## 게할더스 보스의 계시관

이동수 목사  
(Th.M.과정, 45회 졸업, 동래산성교회)

### 들어가면서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그는 오늘날의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다. 이런 보스의 공로는 그가 39년을 가르친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경신학 강의와 수많은 저술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그의 강의를 칼빈신학교의 루이스 벌코프에게<sup>1)</sup>,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르디스 클라인이나 리차드 개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sup>2)</sup> 그러므로 이런 보스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신학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 글은 보스의 성경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의 계시관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는 보스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겠는데, 그의 사상들은 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1) David F. Wells (ed.),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박용규 역, 서울: 엠마오, 1992, pp.126-129.

2) Ibid., pp.44-45.

로 살펴보겠다.<sup>3)</sup> 그리고 그의 주저인 「성경신학」<sup>4)</sup>을 중심으로 그의 계시관을 살펴보고 그의 계시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겠다.

## I. 게할더스 보스의 생애와 사상

### 1. 게할더스 보스의 생애

보스는 1862년 3월 14일 화란의 프리슬란트 주의 헤렌벤(Herenveen)에서 독일인 부모를 양친으로 출생하였다. 보스는 화란서 김나지움을 마치고, 미쉬간 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있는 기독교 개혁교회(C.R.C.)의 청빙을 받은 아버지와 함께 1881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이곳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독일의 베르린 대학과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등지에서 7년간의 신학 수업을 하였다. 그는 신학의 마지막 수업 기간을 화란에서 보내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등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1888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철학부에서 아라비아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학생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기도 전에 교수로 청빙되기도 했다. 카이퍼에 의해 암스텔담의 자유대학교의 구약교수로 청빙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1888년 부모들의 권유로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기독교 개혁신학교(칼빈신학교의 전신)의 교수로 취임한다. 그는 이 학교에서 회랍어 문법에서 조직신학까지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게 된다.<sup>6)</sup>

3)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리차드 개핀이 편집한 보스의 단편저작집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New Jersey: P. & R., 1980, pp.ix-xxiii의 서론을 참고하였다.

4) 여기에서 텍스트로 사용한 것은 G. Vos의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을 이승구가 번역하고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1993년에 출판한 것을 사용했다.

5) G. Vos, *Die Kampfe und Streitigkeiten zwischen den banu umajja und den banu hasim*, Leiden: E.J. Brill, 1888.

1893년 그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새로 개설된 '성경신학' 강좌의 교수로 청빙을 받은 일이다. 갈등 끝에 그는 프린스턴행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39년 동안 70세에 은퇴하기까지 프린스턴에서 성경신학을 가르쳤다. 프린스턴에 있으면서도 보스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와 계속 교제를 가졌는데 프린스턴의 연례행사였던 스톤강연의 주강사로 이들을 초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7)</sup> 보스는 1894년 4월 24일 목사로 임직하여 1949년 8월 13일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

### 2. 게할더스 보스의 사상

게할더스 보스의 사상의 흐름을 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그의 작품들은 대단히 방대하다.<sup>8)</sup> 그는 수많은 단행본 '저서'들을 남겼다. 또한 *The Presbyterian Review*,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등 신학잡지에 유럽신학계의 중요 작품들에 대한 '서평'들과 그의 '소 논문(小論文)'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같은 사전에 글들을 기고했다. 그러나 단권으로 출판된 그의 중요 작품들과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De verbondsleer in de Gereformeerde theologie*, 1891. 이는 보스의 학

6) 보스는 그 당시 그 학교에서 머무는 5년 동안 주당 25시간 이상을 강의했고, 게다가 「개혁신학에서의 언약교리의 역사적 연구」와 여러권의 「교의학」 책들을 화란어로 저술했다.

7) David F. Wells (ed.), op. cit., p.45에서는 카이퍼는 1898년에, 바빙크는 1880-1889년에 강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바빙크는 1908-1909년에 걸쳐 강의하였다. 이 강연의 산물로 바빙크는 계시의 철학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New York: Longman, 1909)을 저술했는데 그 서문에서 바빙크는 게할더스 보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8) R. Gaffin Jr. (ed.), op. cit., pp.547-559 을 보면 James T. Dennison Jr.에 의해 수집된 보스의 작품들이 연도별로 자세히 정리되고 분류되어 있다.

위 논문 이후 첫 작품으로 그의 관심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언약'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개핀도 "보스의 신학적 관심의 뿌리는 '언약 교리'에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다음으로 Systematische theologie (Compendium), 1895와 Gereformeerde Dogmatiek I-V, 1896 등의 작품이 있는데 보스의 학문적 영역이 조직신학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시 보스는 성경신학자보다는 조직신학자로 명성이 높았다.<sup>10)</sup>

그리고 The T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1903과 The Self-Disclosures of Jesus, 1926에서는 보스의 관심이 성경신학 쪽으로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의 자기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에 대한 당시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비판한 뒤, 예수님의 여러 호칭들을 중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의식과 자기계시 사역을 밝히고 있다. 이는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한 성경신학적 저술이다.<sup>11)</sup>

또한 The Pauline Eschatology, 1930은 그 동안 발표한 소논문들을 정리한 것인데 단순히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신학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The Teaching of the Epistles to the Hebrews, 1944도 역시 그 동안 발표한 소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히브리서의 '언약' 개념은 보스의 일관된 관심이었다.

끝으로 Biblical Theology, 1948은 게할더스 보스의 아들 요하네스 보스가 편집한 것이다. 사실 보스 자신은 1895년에 프린스턴에서 「성경신학(강의안)」을 출판한 적이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스의 강의안을 책으로 만든 것이 「성경신학」이다. 결국 그의 신학적 결실은 성경신학으로

9) Ibid., p.xi.

10) David F. Wells (ed.), op. cit., p.147.

11) G. Vos, 「예수의 자기계시」,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1, p.9.

귀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II. 게할더스 보스의 계시관 이해

게할더스 보스의 계시관은 그의 주저 「성경신학」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므로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sup> 그래서 「성경신학」제1장 서론은 '성경신학의 성격과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보스의 계시관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장을 중심으로 그의 계시관 이해를 시도해 보겠다.

### 1. 계시의 정의

보스는 신학의 4대 분야를 언급하면서 '주경신학'의 한 분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연구가 성경신학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정의하길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고 했다.<sup>13)</sup>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란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스는 계시가 신적 행위의 완성된 산물이 아니라 그 신적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계시란 하나님의 구속 행위 자체이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보스가 계시라는 용어를 행동을 뜻하는 명사라고 한 것이다.<sup>14)</sup>

### 2. 계시의 구분

보스는 그의 성경신학 제 2장에서 '계시 영역의 구분'을 한다. 그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계시를 구분한다. 즉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12) G. Vos,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19.

13) Ibid., p.21.

14) Ibid.

계시를 구분한다. 죄와 상관 없이 없었던 때의 자연계시는 내재적 자연과 외부적 자연으로 나누는데, 본유적 신인식인 내재적 자연에 외부적 자연이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두 원천에 초자연적 계시가 부가되는데 이는 자연계시가 죄의 유입으로 영향을 받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죄로 자연계시 자체의 구조가 왜곡되고 교정받을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이 특별계시이다.

이 특별계시는 다시 전(前) 구속적 특별계시와 구속적 특별계시로 나누는데, 전(前) 구속적 특별계시를 흔히 '행위언약'이라고 하고 구속적 특별계시를 '은혜언약'이라고 한다. 이 때 '행위언약'을 구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구약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이란 '은혜언약'의 두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구약'이란 메시아 강림 이전의 '은혜언약'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이란 메시아 강림 이후의 '은혜언약'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보스가 계시의 구분을 일반(자연)계시와 특별(초자연적)계시로, 다시 자연계시는 내재적 자연계시와 외부적 자연계시로 나누며 초자연적 계시는 전 구속적 특별계시(행위언약)와 구속적 특별계시(은혜언약)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 3. 계시의 특성

보스는 그의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특성을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로 계시는 한 소진적(消盡的) 행위 안에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 행위의 긴 과정 중에서 전개된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 구속이 점차로 전개되듯이 계시도 점진성을 가질 수밖에

15) Ibid., pp.35-42.

없다.

둘째로 계시는 역사와 동시에 일어날 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구현되기도 한다. 우리는 행위계시와 언어계시를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언어계시를 위해 행위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계시가 되었다. 그러나 행위계시에는 반드시 언어계시가 따르게 된다.

셋째로 계시 가운데는 역사적 과정의 유기적 성격이 있다. 유기적 점진성이란 씨형태로부터 완전한 성장에의 도달을 말한다. 이는 질적으로 씨가 나무보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씨형태라도 불가결한 지식의 최소량은 이미 가지고 있다. 또 이 특성은 계시가 그 상향운동 중에서 어떻게 구속의 상향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구속 자체가 본래 점진적이므로 계시도 점진적이고, 구속과 계시는 보조를 맞추어 진행하는데 획기적인 구속행위로 계시의 운동 역시 활발하고 양이 증대된다. 이런 계시의 유기적 성격으로 계시의 증대하는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네째로 계시는 지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적용성이 있다. 복음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적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적 의미로 '삶의 내면적인 경험과 실제적으로 부합되어 있는 어떤 실재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16)</sup>

### III. 게할더스 보스의 계시관 평가

16) Ibid., pp.21-25.

게할더스 보스의 계시관을 평가함에 앞서 우리는 보스의 성경신학의 발전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보스가 성경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일에서 연구할 무렵으로 추측된다. 그는 당시 독일의 비평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반동으로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성경신학을 시도하려 했다.<sup>17)</sup> 그 결과로 보스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 보스 자신은 개혁교회 출신으로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스의 계시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1. 먼저 보스가 카이퍼에게 받은 영향을 살펴 보겠다. 보스는 카이퍼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유기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카이퍼가 유기체 사상을 사용한 동기는 첫째로 19세기의 기계적 세계관을 배격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통일성과 연관성을 강조한 때문이고, 셋째로 하나의 원(原) 원리에서 실제 설명을 시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런 카이퍼의 유기체 사상이 보스의 계시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본고 II의 3을 보라). 보스는 카이퍼의 유기적이란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쓸 뿐 아니라 개념상의 차이도 없다. 카이퍼는 유기체의 ‘성장’을 말하는데 보스는 계시가 ‘상향운동’을 한다고 한다.<sup>19)</sup> 또 유기적 점진성을 말하면서 소위 ‘뿌리’ 개념도 반영하는데 카이퍼는 ‘중생전 제설’을 말하면서 중생은 사람의 중심에 ‘씨’를 심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스는 “계시의 씨형태로부터 완전한 성장에 도달한다”고 계시의 발전

17) R. Gaffin Jr. (ed.), op. cit., p.xii.

18) K. Veling, "Kuypers visie op de wetenschap als organisme", in: Bezielend verband. Opstellen aangeboden aan prof. J. Kamphuis, Van den Berg, Kampen, 1984, pp.277-288 (변종길 교수님이 요약한 강의안에서 재인용함.)

19) G. Vos, op. cit., p.23.

에 이 ‘뿌리’ 개념을 사용한다.<sup>20)</sup>

카이퍼의 유기체 사상을 보스는 계시의 역사성 안에 적용하였다. 그럴 때 계시는 자연적으로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물론 성경에는 계시사적인 진전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긍정적인 상태로 진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 안에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가리워지거나 희미해지기도 하고 밝게 드러나기도 했던 것이다. ‘계시사적인 발전’과 ‘계시의 유기적 성격’이란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계시사적인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

2. 보스가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보겠다. 바빙크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동시대의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그의 주저는 네권으로 된 「개혁교의학」인데 특징은 첫째로 성경적 자료의 밀접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교리의 역사적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점과, 셋째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sup>21)</sup> 그는 이 외에도 「이성적인 믿음」과 「계시의 철학」 등의 저서가 있다.

특히 「계시의 철학」은 게할더스 보스에 의해 초칭되어 1908-1909년의 프린스턴에서 행한 강연을 모은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이 보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거나, 아니면 보스가 이미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바빙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사이에는 초자연적 세계관의 보편성이 있다고 전제한다.<sup>22)</sup> 그는 자신의 계시의 철학의 아이디어를 철학, 자연, 역사, 종교, 기독교, 종교체험, 문화, 미래와의 함축성을 갖고 발전시킨다. 그의 관점은 한 마디로 세상의

20) Ibid.

21) John Jefferson Davis, Theology Primer, Grand Rapids: Baker, 1981, p.40.

22) H. Bavinck,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New York: Longman, 1909, p.1.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에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바빙크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자연적 세계관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생각과 보스가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또 보스의 계시 의존 사색은 바빙크의 신학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이다. 물론 이런 점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계시관이 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두 사람 모두에게 계시에 대한 절대적 위치를 인정한 점은 공통적 요소로 발견된다.

3. 보스는 계시의 범위를 말할 때 만전영감설을 말하면서<sup>23)</sup> 그의 「성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까지만 다룬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 초기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의 사건들,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은 다루지 않는다. 이는 계시의 목적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 보스는 특별계시의 기능을 “죄에 빠진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새로운 진리를 소개함에 있다”<sup>24)</sup>고 하면서도 구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즉 보스의 계시관에 있어서 구원 계시의 가장 정점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은 오히려 희미하다. 특히 보스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핵심과 절정으로 생각하면서 “죽으심 이 후에는 더 이상의 그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sup>25)</sup> 결국 보스는 부활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sup>26)</sup> 이것은 보스의 계시관이 갖는 중요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23) G. Vos, op. cit., p.30.

24) Ibid., p.36.

25) G. Vos, 「예수의 자기계시」, p.318.

26) G. Vos,의 「바울의 종말론」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6-9장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부활’을 주제로 다룬 것도 재림에 대한 가르침들이다.

4. 보스는 성경신학을 가르쳤으면서 성경신학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하고 조직신학을 오히려 중시한 것 같다. 보스는 그의 책 「성경신학」에서 성경신학이란 용어를 정의하면서 ‘특별계시 역사’란 용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경신학’이란 명칭이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일반계시를 제외한 모든 신학이 사실은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란 형용사가 마치 이 분야만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는 만일 성경적이란 형용사가 성경적인 출처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변형없이 성경적인 형태 가운데서 진리를 재생해 내는 방법 때문이라면 다른 신학의 분야는 이 진리를 교묘히 조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되고, ‘성경신학’만이 자료의 변형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성경신학’도 ‘조직신학’처럼 자료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단 ‘조직신학’이 ‘논리적’ 성격을 띠었다면 ‘성경신학’은 ‘역사적’ 성격을 띠었을 뿐이다. 세째는 신학의 4대 분야를 주경, 역사, 조직, 실천신학이라고 하므로 그 중 한 분야에 속한 작은 분야를 성경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또 하나의 큰 분야를 제시하는 듯해서 사실은 종속적인 것이 나란히 선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계시 역사’란 명칭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스의 견해는 카이퍼의 견해와 유사하다. 카이퍼는 말하길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은 교의학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성경에 들어 있는 신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신학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성경 각권의 저자들을 우리와 비슷한 신학자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theologia biblica)이란 용어를 거부하고 ‘계시역사’(historia revelationis)란 용어가 좋다”고 한다.<sup>27)</sup>

27) A.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J.A. Wormser, Amsterdam, 1894, III, pp.166-79. (변종길, 복음석의 (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1995, p.1에서 재인용함.)

여기에서 우리는 보스가 '성경신학'을 계시역사의 진전으로 이해한 점이 카이퍼의 견해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스가 당시에 교의학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성경 신학'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시 역사'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은 돋보이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신학이란 학문의 위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점을 지나칠 수 없다. 보스는 성경신학을 오늘날과 같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과 대등한 신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스는 신학과목의 분류에 있어서 주해와 조직신학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정의내렸다.<sup>28)</sup> 이는 보스가 성경신학의 위치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대한 부수적 작업 정도로만 평가한 것임을 보여 준다.

## 나오면서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은 계시관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계시란 역사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행위'이다. 또한 역사란 하나님의 구속행위가 펼쳐지는 장이므로 특별 계시는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스의 신학적 방법이 성경 계시의 역사적 이해를 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구속역사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데 있다. 보스의 주저인 「성경신학」이 마치 기초부터 튼튼하게 건물을 세우다가 중단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계시사적인 진전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보스의 시대 이전까지 성경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발전

되었다. 또한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의학의 발달로 성경의 역사성이 무시되었다. 이러한 때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성경신학을 시도한 보스는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의 선구자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성경신학 자체보다는 교의학이 유행한 당시에 보스는 교의학자인 카이퍼와 바빙크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보스의 한계인 동시에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신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의 공로일 것이다.

28) G. Vos, 「성경신학」, p.11.